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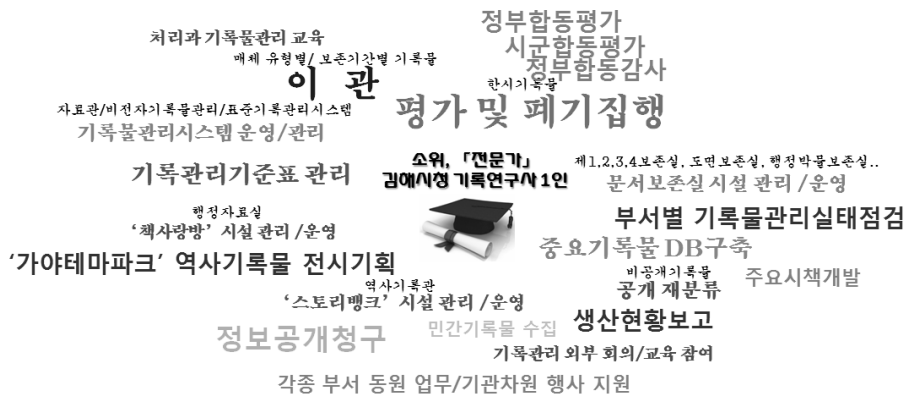
한국기록관리학회 추계학술대회
세션명 : 지방기록물관리의 현황과 전망, 그리고 비전

발표 2.

기초 자치단체 기록관이 기대하는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포지셔닝 : 새로운 상사의 부임이 아닌 튼튼한 업무 지원군의 발령을 기대하며

김 채 원

김해시청 기록연구사
Email: chaewon@korea.kr



“기초 지방자치단체 기록관에서의 최근 주요 현안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기록관리 현안과 기초 지자체 기록관의 현안은 지극히 다르다. 1인 단독으로 기관의 전체 기록관리업무를 수행해야만 하는 현실에서는 매일의 현안이 달라지기 일췌다. 아주 솔직하게 기초 지자체 기록관의 현안은, 국가기록원으로부터의 업무 시달, 법정 기록관리업무, 정부합동평가를 위시한 각종 기록관 평가지표이며 때로는 기록관리와

는 무관한 기관의 행정 현안이 연구사에게 당면과제가 되기도 한다. 즉 대부분의 현안이라는 것이 극히 수동적이며, 한편으론 1인이 감당하기엔 현안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도 있다. 게다가 성과주의 행정의 특성상 소속기관에서는 매해 새로운 시책을 요구한다. 2015년도 <기록인대회> 개최를 한 달여 앞둔 지금도 전국 공공기관에서는 내년도 주요사업 계획과 예산 수립에 한창이다. 이러한 시책은 당해 연도에만 시행하고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누적된다. 즉 기록관리업무량이 시간과 정비례하게 되어, 결국은 절대적인 시간과 인력 부족으로 업무처리의 질적 저하를 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주변의 적잖은 압력에 굴하지 않고 전문가의 직업 윤리의식을 발휘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수행업무를 가려내기에는 상부기관의 일률적인 '줄세우기'식 평가가 여간 부담스러운 게 아니다. 지금의 1인체제에서 기관 평가는 곧 연구사 개인의 평가이고, 이는 곧바로 기관 내부에서 연구사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설치를 앞두고, 이것이 지방 기록관리에 새로운 돌파구가 되어줄 수 있을지, 그저 지금의 중앙기록물관리기관 역할 대신일지에 대한 다양한 기대감 또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저마다 최초 설립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쥐기 위해, 조기 설립에 유리한 현실과만 타협하고 있다. 공동설치 형태는 꿈도 꿀 수 없는 형편이다. 이러한 추세라면 기초단위 입장에서는 광역시·도 단위의 기록관이 새로운 상부기관이 되는 것이다. 함께 고군분투했던 시절을 거울삼아 혁신적인 기록관리 프로세스와 인프라 구축으로 지방 기록관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지, 이전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이 해오던 역할을 그대로 답습할지는 알 수 없다.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일률적인 프로세스와 평가 지표로는 지방 기록관리를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데에는 모두가 동의했지만, 과연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 이에 대한 해답이 될지는 의견이 분분하다.

이에 기초 지자체 기록연구사 스스로도 본인이 전문가임을 자처한다면, 그간의 수동적인 업무 자세에서 벗어나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 여부를 관망만 할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상사의 부임이 아닌 든든한 지원군을 맞이하기 위해 함께 고민하고 긴밀히 협력하여 우리의 지방 기록관리 이상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지 않을까. 물론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 추진단에서 개입의 여지를 조금만이라도 내어준다면 말이다. 적어도 일반 행정의 논리로만 조직이 구성되고 기록관리 프로세스가 수립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